

【논문】

색 경험과 환원적 설명*

—성향적인 고차 이론의 옹호—

김 효 은

【주제분류】 분석철학, 심리철학, 인식론

【주요어】 색깔, 성향, 고차적 사고이론, 인지적 복잡성, 무의식적 지각

【요약문】 의식적 경험에 관한 성향적 고차 이론은 경쟁 이론인 일차이론과 고차적 사고이론의 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제시되었다. 성향적 고차 이론은 단순히 일차 이론의 난점 뿐만 아니라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이 정작 여러 형태의 무의식적 지각 상태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반면, 일차 이론의 설명이 보이는 강점이었던 지각 경험의 본래성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성향적 고차 이론이 취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 지각 경험이 본래적이라는 당연시 여겨졌던 가정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지각 경험에 있어서 임의로 짧게 상정된 관찰시간에 기인한다고 방어하였다. 이런 점에서 성향적 고차 이론은 지각 경험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가정했던 존재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성향적 고차 이론은 색깔의 물리적 속성이 본래 성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색깔이 지각되는 인과 과정 또한 과학적 성과와도 일관적임을 밝히면서 다양한 지각 경험들의 차이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354-2007-1-A00052]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I. 의식의 문제와 고차적 설명의 필요성

‘의식’의 문제는 과학에서는 마지막 정복지로, 철학에서는 ‘어려운 문제(hard problem)(Chalmers 1996)로 손꼽히는 난제이다.¹⁾ 주관적으로 여겨지는 의식 경험과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물리적 토대 간의 관계는 두 영역 간의 상이한 특성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적 상태와 의식 상태 간의 간극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은 의식을 신경과학적 용어나 물리적 용어로 설명하는 환원주의적 방법과 이와 대조적으로 그 간극 자체가 바로 의식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이 두 설명방법은 양립되기 어려운 두 입장으로 과학과 철학에서 의식이라는 영역을 난공불락의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어왔다.

두 설명이 대립하면서도 계속 변형을 거듭하여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먼저 ‘의식’이라는 개념은 여러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종적(heterogeneous)인 개념(Flanagan 1992)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의식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여러 철학자들의 설명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의식’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색깔’이라는 의식 경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의 설득력을 논하려 한다. 또한 어떤 의식 이론이든 구체적인 의식의 사례에 적용되어야 성공적인 의식이론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색 경험이 의식을 논하기에 적절한 이유 중 중요한 점은 의식에 관한 대조적인 두 종류의 설명이 우리가 가진 경험의 두 측면을 반영하는데, 색깔이 바로 의식의 이러한 두 측면을 잘 드러내어 주기 때문이다.

어떤 한 대상의 색은 그 대상에 속해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색을 경험하는 이의 경험에 의존하여 있다. 어떤 나뭇잎 표면이 가지고

1) ‘의식’은 그 개념이 사용되는 철학적 맥락에 따라서 여러 형태-예컨대, 상태의식, 피조물 의식, 정보접근 의식, 현상적 의식-등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의식’이라 할 때에는 ‘현상적 의식’을 가리킨다.

있는 색은 내가 보기에는 초록색이지만, 강아지나 물고기에게는 각각 다른 색깔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색깔은 대상이 가진 속성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가 가지는 속성이기도 하다는 이중적인 특성이 모두 설명되어야 비로소 색에 대한 온전한 설명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의식, 특히 현상적 의식²⁾은 물리적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잘 알려진 좀비 논변(Chalmers 1996), 지식 논변(Jackson 1982)과 같은 사고실험에 의해서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사고실험들은 최근 신빙성이 크지 않다는 반박을 받고 있다. 현상적 의식은 신비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색깔, 냄새, 통증과 같은 현상적 의식이 물리적인 기반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현상적 의식이 완전히 비물리적이라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사고실험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방법은 현상적 의식이 비물리적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보다는 신경과학적 혹은 물리적 상태와 의식의 상태 사이에는 설명되어야 할 많은 차원들이 존재하고 이 차원들에 대한 연구를 추동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 다룰 고차 이론(higher-order theory)은 심-뇌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그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차 이론은 의식이 신경생리학적이고 물리적인 상태로 환원된다는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도 않으며 심적 상태가 두뇌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차 이론은 의식을 물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신 ‘자각’이나 ‘사고’와 같은 심리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또다른 환원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 새 접근에 대하여, 오랜 동안 의식의 대표적인 문제로 제시되어 온 설명적 간극에 대한 해결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

2) ‘현상적 의식’(phenomenal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은 의식의 느껴지는 질적 측면을 일컫는 표현으로 ‘정보접근적 의식’(access consciousness)가 정보의 제어, 추리의 측면인 점과 대조된다. 이 의식 개념들은 블록(Block 1995)에 의해 제시되었다.

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고차 이론이 의식을 심리적 용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과연 의식이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한걸음 떨어져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연 고차 의식이 의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반면 물리주의나, 반물리주의나 의식 논쟁이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소득도 올리지 못했음을 생각할 때 일단 그 논쟁에서 중립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의식이 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더 공고하게 주장하기 위해 물리적 설명에서 부족한 측면으로 남았던 점들을 상위차원의 심적 차원의 설명으로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고차 이론은 심-뇌 관계에 대한 물리적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설명을 보강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심적 측면에서의 환원을 통해서 차후 그것을 다시 물리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물리적 상태와 의식 상태 사이의 간극을 채울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식을 심적 용어로 설명하는 고차 이론의 방법은 의식과 물리적 상태 간의 설명적 간극 사이의 설명해야 할 여러 단계 중 상위차원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설명들은 특정 심적 상태가 그것을 자각하는 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통해서 의식 경험을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환원주의적 설명과 다른 종류의 시도이다. 기존의 의식에 관한 환원주의 이론들이 주로 물리적 차원의 삼인칭적 관점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의식 경험의 일인칭적 관점을 통해 의식의 본성을 드러내는 시도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은 의식의 상태를 미시적·물리적 상태로 환원하는 설명과 양립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상태와 의식 상태 간의 간극 사이의 설명적 연결을 촘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차 이론의 이러한 이중적 전략의 한 증거는 고차 이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실제로 심적 용어들 간의 분석에 매몰되지 않고, 설명의 근거로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의식에 관한 심리적 차원의 환원주의적 설명들을 검토하여 색깔 경험의 중요한 특성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를 탐색한다. 고차 이론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물리적 설명과의 연결까지는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지각 경험에 관한 경험과학적 결과와 일관적임을 보일 것이고, 기존의 물리적 설명에서 미처 설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남은 의식 경험의 차원들이 잘 설명될 수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도들 중 성향주의적 방향을 취하는 고차 이론을 옹호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설명보다 의식 경험의 한 구체적 사례인 색깔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 시험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 2절에서 고차 이론이 의식 경험, 구체적으로는 색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세 절(3,4,5절)에 걸쳐서 색 경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에 대해 어떤 이론이 더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과 결론에서 성향주의적인 고차적 사고이론이 ‘성향적’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설명적 난점들을 극복하면서 현상적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II. 색 경험에 대한 의식 이론들의 설명

의식이 일종의 고차적인 자각(higher order awareness)의 상태라는 생각은 사실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7세기 근대 철학자 존 로크(1690/1987)는 “의식이란 자기자신의 마음 안에서 지나가는 것에 대한 지각이다”라고 했다.³⁾ 예컨대 어떤 경험이 한 주체에 있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내려는 작업은 일차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

3) 고차적 상태가 지각인가 사고인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이 논문에서는 고차적 상태를 사고로 보는 고차적 사고이론(higher order theory of thought)에 국한한다. 고차적 지각 이론(higher order theory of perception)은 국내에서 윤보석의 논문(2001)에서 논의되었다.

의식적 상태에서부터 의식적 상태로 전환하는 다음의 예들을 잘 설명해 준다. 예컨대, 내가 지금 고차 이론에 대한 글을 쓰는데 몰두해 있다가 어느 순간 히터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아! 히터가 켜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난방기구의 소음에 대한 일차적 지각 표상 상태를 내성적 의식으로 전환하게 하여 알아차리게 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야구 경기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타자가 부상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음 베이스를 향해 질주한 후에야 비로소 부상의 통증을 자각하는 사례와 유사하다.

현상적 의식에 관한 고차적 사고 이론(higher-order thought theory)에 따르면, 어떤 심적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현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식적이지 않은 심적 상태도 있다는 것이다. 고차 이론은 현상적 의식은 의식적일 수도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일차적 지각 경험의 상태들을 고차적인(혹은 이차적인) 생각에 의해 파악할 때 그 내용이 파악되는 것이라고 한다.(Rosenthal 1986, 345-350)⁴⁾ 이렇게 일차적 상태와 이차적, 혹은 고차적 상태 이렇게 두 단계의 상태를 상정하는 고차 이론은 신경생리학적으로도 근거 가진다. 우리의 의식 경험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시스템 중 하나는 의식적,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인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서 볼 수 있다. 밀너와 굤데일(Milner & Goodale 1995)은 뇌의 두정엽과 측두엽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신경심리학적 실험에 기반해서 의식적 지각과 무의식적 지각을 구분한다. 그들의 실험에서 측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을 상실했고 대신 감각운동 능력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즉 측두엽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경험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두정엽은 시각적인 제어를 하는 자동운동적 측

4) 이 정의에서 ‘고차적 상태’란 어떤 것에 ‘대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에 대하여 파악하는 상태가 반드시 의식적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의식 경험에 대한 고차적 이론에서 의식을 ‘고차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자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Gennaro 2004, 3)

면을 담당한다고 한다. 두 시스템 중 하나는 의식적 측면을,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측면을 담당한다. 이러한 두 신경경로는 우리 마음이 일면적이지 않고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차 이론이 가정하는 두 차원의 심적 상태 구조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차적 상태 자체가 우리의 색 경험을 비롯한 현상적 의식이 아니라 그것에 ‘이용가능한’ 성향적인 고차적 상태라는 것이 로젠탈의 고차적 사고이론을 변형한 ‘성향주의적인 고차적 사고이론(dispositional higher order thought theory)’ (Carruthers 2000)이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론이 아니라 고차적 사고 이론을 변형하면서까지 그 설명력을 확보하려는 의식 철학자 커루터스의 제안은 그 설득력을 단순히 하나의 ‘심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론을 빌어 확보한다. 이 의미론을 통한 성향적 버전의 설명 이론의 제안은 고차적 사고이론이 처한 난점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지각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환원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커루터스의 구체적 논변은 다음 절에서 논의되겠지만, 성향주의적인 고차적 사고이론이 ‘성향적’인 특성을 구현하려는 동기는 미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성향적’ 특성은 우리 마음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각 마음이 가지는 주관적인 질적 특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비유가 유용하다고 본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경우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상메모리를 설정해서 일부 작업을 그 쪽으로 옮겨주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상의 세세한 사항들에 관한 고차적 상태를 모두 실제로 나타나게 하면 그 상태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있게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의 소용에 따라 고차적 상태가 나타나도록 해서 정보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때 성향적으로 있다가 후에 고차적 사고이론으로 이용가능한⁵⁾ 내용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단기기억 저장소(Carruthers 2000,

227) 안에서 아직 실제로 그 내용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고차적 사고이론에서의 의식적 경험의 형태처럼 개념적 내용을 가지지 않고 비개념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내용을 가지는 종류의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향적 내용의 고차적 사고이론을 제시하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고차적 사고 이론의 설명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3,4,5절에서 고차적 사고 이론의 설명과 성향적 버전의 고차적 사고 이론의 설명을 비교해보겠다.

먼저 두 이론이 여러 철학자들이 제기한 인지적 정보처리의 복잡성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필자는 특히 색깔 경험의 몇 가지 현상들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력을 비교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의식적인 지각 경험과 무의식적인 지각 경험, 그리고 다른 종류의 유사하게 보이는 무의식적인 지각 경험들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이를 위한 피설명항으로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철학 문헌에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왔던 철학자 암스트롱(Armstrong 1968)이 주목한 장거리 운전 사례와 신경심리학적 사례들 중 하나인 맹시(blindsight) 사례(Weiskrantz 1986)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향적 버전의 고차적 사고 이론의 중요한 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5) 여기서 ‘이용가능’(availability)하다는 의미는 블록의 두 종류의 의식 개념 중 하나인 ‘접근의식(access consciousness)’에의 내용인 정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Block 1995)과 일견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블록의 의식 개념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행위나 말화의 제어의 합리적 제어에 사용되는 ‘정보가 접근가능’하다는 더 넓고 일반적인 의미로, 고차적 사고이론(성향적이든 아니든)에서 사용되는 ‘내성적(introspective)’이거나 ‘성향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Rosenthal 2004, 41) 실제로 블록은 고차적 사고이론이 의식의 여러 의미 중 ‘내성적’인 측면의 의식을 설명해주는 데 적합해 보인다고(1995, 235)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Ⅲ. 인지적 정보처리의 복잡성 문제

우리의 의식적 경험에 들어오는 내용은 풍부하고 세세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내가 창 밖을 내다 보았을 때 나는 나무들과 가로수,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 하늘의 구름과 해, 가로등과 건물들 그리고 이들의 색깔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 때 설명해야 할 문제는 이 무수히 많은 대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모두 의식하는 가이다.

이 현상에 대해 고차이론의 설명을 적용해보자. 먼저 고차이론의 설명을 따르자면, 보여지는 무수한 대상들에 대해 각각 고차적인 믿음들을 모두 가져야 한다. 즉 위의 예에서, 우리는 ‘나무들이 있다’, ‘나무들이 길 위에 서있다’, ‘사람들이 나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자동차가 가로수와 사람들 옆을 달려가고 있다’, ‘가로등 불이 막 들어왔다’ 등 무수히 많은 믿음들을 가진다. 이런 믿음들이 매순간 바뀌면서 또 새로운 믿음들과 함께 동시에 처리된다. 이 점이 주목할만한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에 포섭되는 수많은 측면들 각각에 대해 고차이론의 설명처럼 모두 고차원적 믿음을 가진다고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주 많은 양의 인지적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지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숫자의 수는 일곱이라고 한다⁶⁾. 또, 현재 인지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서는 기억의 내용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나면 없어진다.

이런 제한된 인지용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복잡하고 많은 수의 믿음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설명되어야 할 문제 상황이다. 이것을 커루터스는 ‘인지적 과부하(cognitive overload)’의 문제(Carruthers 2000, 221)라고 부른다. 한 가지 가능한

6) 심리학자 밀러(Miller 1956)에 따르면, 우리가 한번에 기억할 수 있는 대상의 수는 평균 일곱--‘매직 넘버magic number 세븐’으로 불림--이며, 때로 2개 정도가 가감될 수 있다고 한다.

설명은 뇌의 인지처리 용량의 제한과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수많은 믿음들이 다시 유한한 집합의 믿음들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재구성된 유한한 믿음들은 제한된 인지용량으로 처리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우리가 가지는 지각 내용은 믿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믿음이라는 단위는 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믿음 내용이 연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디지털적 내용으로 형성된다. 무수히 많은 수의 믿음 내용들이 유한한 집합의 믿음들로 파악되어 하나의 전체적 내용으로 동시에 구성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와 관련하여 번(Byrne 1997, 117)은 시각적 경험의 잡다한 다수의 내용이 과연 단일한 사고로 포섭될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한다.

이에 대해 데넷은 ‘미시 판단’(micro-judgment)을 상정(Dennett 1998, 133-134)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산적 복잡성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데넷은 현상적 의식 안에 포섭되는 어떻게 여러 가지 지각적 다양성이 통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각 경험의 내용들 모두가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닐지언정 그런 미시판단들이 어떻게 고차적 사고에 의해 의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색깔 경험의 예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그 한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색깔은 우리가 이름붙일 수 있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 또, 망막 안의 원추세포가 세 종류인 인간에 비해 원추세포가 열한 종류나 되는 새우는 인간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색조를 볼 수 있다. 또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넘어서 자외선 영역까지 볼 수 있는 벌은 우리가 동일한 색깔로 지각하는 색들을 다른 색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거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색의 수 이상의 색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차적 사고이론은 우리가 색깔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색깔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경우라고 가정한다. 예컨대 우리가 순수한 빨강, 노란빛 빨강, 보랏빛 빨강 등 여러 색조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여러 색조들과

구분에 대한 고차적 사고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색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고차 이론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색조들에 대한 개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가? 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색깔을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다른 색깔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개념들에 맞는 색깔들을 연결짓는 방식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 색깔이 인접해 있는 다른 색깔에 대조되어서야 비로소 한 대상이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Rosenthal 2004, p.26) 예를 들어, 흰색과 갈색, 검정색은 주변의 다른 색이 없다면 그자체의 색을 지각하기 어려운 색이라고 한다. 또, 동일한 색이라 하더라도 인접한 색깔이 다르다면 그 색은 다르게 지각되는 ‘색 대비현상(color contrast)’⁷⁾은 우리가 어떤 색깔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색조에 대한 개념을 각기 가지고 있을 있어도 적절하게 적용되기 어렵고 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반례는 색 항등성(color constancy)이다. 색깔에 있어서 항등성의 문제는 우리가 한 대상이 본래 가진 색인 ‘항등색’을 지각함과 동시에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겉보기색’도 동시에 지각한다는 재미있는 색 현상이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노란색을 어두운 그늘에서 보면 갈색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 바나나의 표면의 색을 노란색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갈색으로도 본다. 이것은 ‘노란색이면서 동시에 노랗지 않은 색’을 우리가 본다는 복잡한 인지적 정보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역설적인 상황이다.⁸⁾ 여기서 고차적 사고이론의 분석을 적용



- 7) 이 그림은 ‘색깔의 동시대비(simultaneous color contrast)’ 현상이다. 두 사각형 각각의 중앙에 위치한 회색의 작은 사각형 둘의 실제 색과 밝기(명도)가 정확히 똑같다. 그런데 검정색 배경 안에 있는 회색이 오른쪽 회색보다 더 밝게 보인다.

- 8) 색 항등성은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근대 경험론 철학자 버클리의 <새로운 지각이론에 관한 시론>에서의 관심대상이면서, 현대 철

해보면, ‘노란색이 있다’는 생각과 ‘갈색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노란색과 갈색이 동시에 한 대상 표면에 있다’는 것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그늘에 가려진 바나나 표면의 색과 햇빛에 비추어진 바나나 색에 대해서 ‘두 부분의 색은 동일하다’와 ‘두 부분의 색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내가 바나나 표면을 볼 때에는 내가 노란색과 갈색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고서 바나나 색의 항등성을 지각한다. 하나의 대상 표면에 대해 서로 대치되는 색깔 개념들을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또한 고차적 사고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지현상이다.

그러면, 위에서 제시된 색깔 경험이나 색 대비 현상, 그리고 색깔 동성과 같은 색경험 정보보다 인지적으로 정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차 사고이론이 색 경험들을 파악하는 방식은 색깔 경험의 정보들을 개념이라는 도구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색깔 경험 정보를 의식적인 형태로 파악한다는 것이고 이 의식적인 다수의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기 때문에 제한된 인지능력으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것이 문제의 요지이다. 고차적 사고가 의식적이고 이것들이 실제로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면 모든 지각 입력 정보들을 한꺼번에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인지적 정보처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과부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아무리 작은 단위로 쪼개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 작은 단위들이 어떻게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야 한다.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수를 쪼개어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 방법은 해당하는 색깔 경험과 관련된 다수의 정보들을 개념적이지 아니라 비개념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앞 절에서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했던 일차이론의 색깔 경험에 대한 설명 방법이다. 그렇다면, 개념으

로 파악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그 개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모두 의식에 나타나지 않게 한다면 인지적 과부하나, 인지적 정보처리의 복잡성, 그리고 대치되는 색 경험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 등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한 것이 고차적 사고 이론을 ‘성향적’으로 변형시킨 커루터스의 ‘성향적 고차이론’의 설명이다. 고차적 사고 이론의 설명에서 고차적 사고를 의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의식적 경험은 그것에 대한 고차적 사고가 가능할 때마다 ‘실제적(actual)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가능한(available) 성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Dennett 1978, Carruthers 2000) 이 설명에 따르면 “의식적인 심적 사건 M은 내가 M을 가진다는 그리고 그것을 비추론적으로 야기한다는 비의식적 믿음을 야기하는 성향”(Carruthers 2000, 227-8)이다. 하나의 지각 대상을 의식적이게 만드는 고차적 사고는 실제로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고 잠재적이기만 하면, 개념들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서 생기는 인지적 과부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의식적인 심적 사건은 내가 그 심적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비추론적으로 야기한다는 비의식적 믿음을 야기하는 성향이다. 이에 따르면 현상적으로 의식적인 심적 상태는 일종의 비개념적 지향적 내용을 가지는 상태인데, 특정 목적의 단기기억 저장고에 그러한 내용에 관한 고차차원의 사고를 야기하도록 필요할 때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저장된 상태이다.(Carruthers 2000, 227-8)⁹⁾

이렇게 성향적 버전의 고차적 사고 이론이 고차적 사고이론이 가졌던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복잡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지각 경험의 질적 특징이 어떻게 다른 지각 경험과 다른지가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9) 성향적 설명은 본래 데넷(1991)이 제안하였다. 이 입장에 커루터스가 동의하지만 데넷이 ‘그러한 고차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된다’는 점은 제한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의식적 지각 상태의 여지를 열어주면서 성향적인 고차 사고이론을 제안하게 된다. 소비자 의미론은 한 상태의 내용은 소비자 시스템 안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성향에 의존한다.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성향주의적 고차 사고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커루터스가 사용하는 ‘소비자 의미론’(consumer semantics)은 어떻게 성향적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이 특정한 질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소비자 의미론의 내용은 어떤 한 상태의 표상적 내용은 그 상태를 소비하는 시스템, 즉 지각자가 그 상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추론을 만드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어떤 상태가 표상하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그 상태를 소비하는 시스템의 힘에 의존한다고 본다. 어떤 상태가 표상하는 것은 그 인지체계가 그 상태의 존재에서 만들도록 준비되는 종류의 추론이나 행동적 제어에 의존해서, 예컨대 대상 표면의 특정 속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가 그 속성들을 고차적 차원에서 표상하여 ‘빨간색이다’라고 경험하게 된다.

어떤 내용을 소비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가 지각하는 내용을 만들고 변형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설명된다면 잠재적인 내용인 지각 상태가 어떻게 의식적 경험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성향주의적 버전의 고차적 사고이론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빨간색 경험과 초록색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색으로 경험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커루터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사용하는 인공 시각 장치(prosthetic vision)(Carruthers 1998, 219)의 예를 든다. 맹인들은 인공시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장치는 손이나 머리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로부터 나오는 전기출력을 변형시켜서 전기 유도 촉각적 자극으로 변형시킨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피험자들은 처음에는 전기 출력 부분인 손이나 머리에서 약하게 간질거리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손이나 머리에 있는 카메라를 피험자 스스로 제어하게 하면 비로소 삼차원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피험자들 앞에 있는 대상들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대한 표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 예는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간질거리는 촉각으로부터 공간에 관한 정보를 인지적으로 추론해내서 경험을 추측해낸 것이 아니다. 간질거리

는 촉각의 패턴들에 공간에 관한 정보를 담은 내용이 스며들어 있고, 이 정보의 소비자인 피험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날아오는 물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피하기도 하고 구르는 공을 치기도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계획하고 행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공간 정보를 얻는 심적 상태를 다르게 해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Carruthers 1998, 220) 이 실험에서 간질거리는 촉각의 패턴들은 일차적인 지향적 정보 내용에 속한다. 이 정보 내용은 피험자가 카메라를 제어하기 전이나 제어한 후에나 동일하다. 그 패턴들은 대상 자체에 속해 있다. 그런데, 피험자가 즉, ‘세계에 대한 속성’은 같으나 피험자가 카메라를 제어한 후에는 ‘유기체가 경험하는 속성’이 달라진다.¹⁰⁾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경험의 기본적 사실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사람마다, 그리고 다른 유기체들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각 유기체에게 이용 가능한 지각 정보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서 외부 대상의 지각 정보에 대해 다른 분류를 하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성향주의적 버전의 설명은 실제로 지각 경험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모든 입력 정보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여 개념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지적 과부하의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성향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10) 커루터스는 이 두 구분을 각기 ‘세계에 대한 현상적 속성’(phenomenal properties of the world)과 ‘세계를 경험하는 현상적 속성’(phenomenal properties of one’s experience of the world)(Carruthers 1998, 210)으로 표현하여 구분한다.

11) 이것이 바로 의식의 본성에 관해 네이글(Nagel 1974)이 주관성을 강조한 이유이다. 박쥐는 우리처럼 색깔을 인식하는 눈의 기관들을 가지고 외부 대상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반사되는 음파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고양이는 우리처럼 색깔을 인식할 수 없다. 즉, 동일한 세계를 보더라도 각 유기체는 그 자신이 가진 다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든 외부 대상이 가진 색깔이든 그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의 다른 관점에 따라서 그 대상은 주관적으로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의식 경험의 주관적 특성에 대해 성향주의적 버전의 이론이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각 경험의 질적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의 두 절에서 이와 관련된 반론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IV. 무의식적인 색깔 경험의 문제

인지적 과부하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현상적 의식의 내용이 잘 설명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3절에서 성향적인 상태가 어떻게 특정한 질적 특징을 가지는 현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가는 간략하게 제시되었지만, 의식적인 지각 경험에 대한 설명은 의식적이지 않은 지각 경험에 대한 설명 또한 제시되어야 비로소 지각 경험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고차적 사고 이론을 옹호하는 로젠탈은 커루터스의 성향주의적 설명에서 ‘고차적 사고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용가능할 때 의식적’이라는 성향주의적 설명이 결국 모든 마음 상태가 의식적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이 없는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Rosenthal 2004, 26-7)고 비판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커루터스(Curruthers 2000)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지각 시스템이 있는데, 한 시스템은 행동을 하게 하고 무의식적인 지각을 담당하며, 또 다른 시스템은 지각 정보를 전달해서 의식적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함으로써 어떻게 의식적 경험과 무의식적 경험이 분명히 구분되는지, 그리고 외부 대상의 관점이나 지각자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 이상의 것이 지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의식적 경험과 무의식적 경험의 구분은 고차적 사고 이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구분을 통해서 제시되는 설명적 이점은 성향주의적 버전의 설명이 고차적 사고이론보다 현상적 의식의 본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무의식적인 지각 상태의 대표적 예는 철학자 암스트롱(1968) 이래로 철학 문헌에 여러 번 등장하는 장거리 운전자와 신경심리학의 맹시(blindsight)의 예이다. 장거리

운전자의 예와 맹시를 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대상에 대한 경험적 느낌이나 자각이 없으면서도 자각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 대상에 대한 행동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를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해왔던 트럭 운전자들은 유사한 경로에 익숙해진 덕분에 표지판이나 주변사항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능동적으로 지각하지 않고도 반-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한다. 또, 15년 이상 컴퓨터 자판을 사용한 사람들은 어느 자판에 어느 글자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맹시가 색깔을 지각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로이다. 흔히 색깔을 경험한다는 상태는 의식적 상태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맹시(blindsight) 환자 중 일부는 실험사례들 중 75 퍼센트 이상의 확률로, 대상을 묘사할 때 그 대상은 물체의 모양 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분별한다.(Weiskrantz 1986) 이 사실은 색 지각으로 대상을 분별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상적으로 의식적일 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각 경험의 내용을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찾으려는 일차 이론의 설명을 따르자면, 앞에 놓인 물체의 색깔을 맞추는 맹시의 사례는 현상적 의식이 결여되었다기보다는 색깔을 지각하는 상태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하다거나 지각하는 정도가 낮다고 할 뿐 현상적 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색깔에 대해 아날로그적 지각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믿음 형성이나 의사결정 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Dretske 1995, 118-121) 고차 이론가들은 색 지각이 현상적으로 의식적인 것은 고차적 사고 능력에 이용 가능할 때 뿐이므로, 맹시 환자들은 일차적 상태에 대해 고차적인 상태가 없는 사례이고, 이 때문에 현상적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일차이론과 고차적 사고이론에서는 장거리 운전자의 사례와 맹시 사례는 일견 유사한 경우로 분류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같은 무의식적 지각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례는 그 양상이 무척 다르다.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전경에

있는 물체들을 피해보라는 등의 지시가 없이도 반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는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장애물을 피해간다. 반면 맹시 환자들은 지시나 훈련이 있기 전까지는 앞에 놓여진 대상들의 형체나 색깔을 맞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장거리 운전자에게 현상적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반면, ‘비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맹시를 가진 사람의 경우 현상적 의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현상적 의식 일반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이런 차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현상적 의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향적인 고차적 사고가 곧 현상적 의식의 상태라면, 특정 목적의 단기기억 저장고에 이용가능한 정보가 고차차원의 사고를 야기하도록 유효한 방식으로 저장된 상태이며,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개념 체계가 작동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정보가 현실화된다.(Carruthers 2000, 227)¹²⁾ 이러한 과정은 무의식적 지각 현상인 맹시의 색 경험과 고속도로 운전자의 사례에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운전자와 맹시 환자는 그들의 고차적 사고에 이용가능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국부적인 두뇌 손상에 기인하여 어떤 시각 정보가 단기기억 저장소에 머물지 못해서 관련된 정보를 의식적 사고에 가용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맹시가 생기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신경학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맹시는 뇌의 초기시각피질(V1)이 손상되었을 때 생기는데, 이 영역은 의식적인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으로 의식적인 시각 경험 정보가 단기기억 저장소에 다다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대신 무의식적인 시각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손상되지 않은 시각

12) 이런 생각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과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의 한 이론과도 상통한다. 뇌신경과학에서는 뇌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문제를 놓고 국부 이론과 전체 이론이 대립하여 왔는데, 신경과학자인 버나드 바즈(Baars 1997)는 총체적 작업공간(Global workspace) 이론을 통해서 뇌 안의 개념 체계에 지각 표상들을 총체적으로 보냄으로써 우리가 현상적 의식을 비로소 가지게 된다는 주장을 편다.

경로가 있으므로 색경험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할 수 있다.

성향주의적 고차 사고 이론이 이 두 사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앞 절에서 커루터스가 소개한 ‘소비자 의미론’을 통해서이다. 성향적 고차 사고 이론에 따르면, 한 상태의 표상적 내용은 그 상태를 소비하는 지각자가 그 상태에 대해 만드는 종류의 행동적 제어나 추론에 따라 달라진다. 맹시의 사례가 장거리 운전자의 사례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맹시는 시각 정보가 들어와서 의식적으로 경험하게끔 등록되는 장소인 초기시각 피질(V1)이 손상되었으므로, 입력되는 정보-앞에 놓여진 대상의 모양이나 색깔-를 지각자가 행동적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의식적 사고에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어서 현상적 의식의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맹시 환자에게 현상적 의식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반면, 장거리 운전자의 경우 운전과 관련 없는 다른 생각으로 운전 상황에 대한 고차적인 자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뇌손상이 있는 맹시의 경우와 달리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적 제어나 추론이 가능한 신경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현상적 의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V. 색깔 경험은 성향적 특성인가?

앞의 두 절에서 보았듯, 성향적인 고차 사고이론은 일차이론과 고차이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인지적 과부하 문제를 인지적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해결하고, 여러 종류의 무의식적 경험들 간의 차이를 일차이론이나 고차적 사고이론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런데, 성향적 고차이론에서 고차적 사고가 ‘성향적’이라는 특성은 현재 활동성을 가지

기보다는 잠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색깔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은 장차 필요할 때 고차적 사고에 이용가능한 잠재적인 성향으로서 지각되지 않고, 오히려 ‘아 이것은 빨간 색깔이다’라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차적 사고의 형태로 자각한다. 따라서 성향주의적인 고차적 사고이론의 설명이 어떻게 우리의 색깔 경험의 비성향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차적 사고이론을 옹호하는 로젠탈은 커루터스의 성향주의적 고차적 사고이론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적 경험의 그 ‘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Rosenthal 2004, 25-26)를 제기한다.

물론 색깔은 기본적으로 빛에 반응하여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성향적 속성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빛에 반응한다는 측면은 색깔의 특성 자체라기보다는 색깔을 볼 수 있게 하는 배경조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색깔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성향적 속성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색깔을 볼 때에는 범주적 속성으로 지각된다는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Jehle & Kriegel 2006, 469-470)는 반박은 그럴듯하다. 우리는 색깔이 지각되는 과정 모두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색깔을 인지할 뿐이기 때문이다.

고차적 사고에 이용가능한 성향적 상태 즉 고차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어떻게 현상적 의식의 특유한 질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성향’이란 것은 그 자체가 보여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발현됨으로써 비로소 추론되는 것이다.(McGinn, C 1996, 541) 예컨대, 우리는 고무를 눌러봄으로써 고무가 탄력성이라는 성향을 가진다는 점을 추론한다. 성향은 그 자체로는 인과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의식적 경험이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향에 인과력을 부여한다면 그 경우 더 이상 성향이 아니게 된다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반박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향적인 고차 사고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 그러한 반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자. 성향적 고차이론은 색깔경험의 속성내용을 색깔이 지각되는 과정에서의 인과적 역할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과적 과정의 결과로서의 색깔, 즉 범주적 속성으로서 지각되는 측면에 대한 온전한 설명보다는 부분적으로 성향적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현상적 의식의 인과적 역할을 언급하는 설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색깔 경험의 본래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성향적 고차 사고이론에 공평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인과적 역할을 언급하여 성향 개념을 사용하는 설명이 비단 성향적 고차 이론 뿐만 아니라 일차 사고 이론에서도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차 사고이론을 주장하는 타이(Tye 1995)는 의식을 믿음이나 추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상태가 준비된(poised) 것이라고 함으로써 성향적 개념을 이용해서 의식을 설명한다. 그러나 일차적 사고이론은 색깔의 범주적 속성을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색깔 경험을 설명하는 다수의 이론들 중 색깔의 표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인과적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론은 없다. 그런 점에서 성향적 특성이 색 경험의 범주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론은 성향적 고차 사고이론에게만 해당되는 반론이 아닌 셈이다. 일차 사고이론에 그러한 반박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성향적 고차 이론에게도 중요한 반박은 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반박의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 색깔 경험이 범주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생각이 일면적일 수 있다. 우리는 대상이 성향적으로만 보일 수는 없고 범주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예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생각은 범주적 속성으로 보

인다는 색경험을 하는 순간의 시간을 너무 좁게 설정하는 우리의 지각 습관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콤팩트 디스크의 예이다. 콤팩트 디스크의 뒷면은 정지한 순간에 표면에 오색의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움직여도,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조금 더 관찰하면 디스크의 표면에 나타났던 줄무늬는 다른 색깔로 보이거나 사라지게 된다. 즉 대상의 표면에 나타난 색깔은 관찰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향적 속성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찰시간을 짧게 가지는가 아니면 길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색깔 경험이 성향처럼 보이는지 범주처럼 보이는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 경험이 색깔 속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찰시간을 2-3초 정도만 길게 가지기만 해도 색깔은 성향적인 고차적 속성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향적 고차 사고 이론의 성향에 의거한 설명이 우리의 일상적인 색깔 경험이 범주적임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

VI. 성향주의적 버전의 고차사고이론과 환원적 설명

서론에서 기존의 물리주의적인 환원주의 이론과 달리 고차적 사고 이론은 직접적으로 의식 경험을 물리적 상태로 환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궁극적인 환원적 설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색 경험과 같은 현상적 의식에 대해 환원적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 상태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 상태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색 경험 그 자체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색 경험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색 경험과 같은 현상적 의식이 발생하는 데 어떻게 충분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이 성향주의적 버전의 고차 사고이론의 방식이다(Carruthers

2000, 258). 이런 설명 방식은 좀비 논변처럼 물리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감각질의 특성을 강조하는 사고실험과도 양립가능하다.

전도된 감각질이나 결여된 감각질 사고실험, 그리고 좀비 사고실험은 우리의 의식 경험의 질적 특성이 그것이 귀속되는 대상의 물리적, 인과적, 기능적 속성과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시되는 사고실험들이다. 이 사고실험들의 중요한 함의는 예컨대, ‘빨간색 경험’에 대해서 ‘빨강으로 보인다’거나 ‘빨강’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바로 이(혹은 이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인적 개념(recognitional concept)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인적 개념은 우리가 빨간색과 초록색을 볼 때 그에 각각 해당하는 재인적 개념을 가지는데, 이런 여러 재인적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러한 재인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지각 경험들이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색 경험과 같은 의식 경험이 다른 종류의 의식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그 의식 경험인지에 대해 설명한다면, 물리적 상태로 직접 환원하여 좀비 논변과 같은 비환원주의의 비판에 영향을 받을 필요 없이 환원주의적 설명을 할 수 있다. 5절에서 검토한 소비자 의미론의 내용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향주의적 고차 사고 이론에서 현상적 경험을 환원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 도구가 되는 소비자 시스템은 그 추론 능력을 통해서 예컨대 우리가 지각하는 색 경험의 내용도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커루터스가 드는 다음의 실제 예는 색 경험의 내용은 아니지만 유용한 유비를 전달해준다.

커루터스는 위-아래가 바뀌어 보이는 렌즈를 눈에 착용했을 때 처음에는 행동하기 조차 어려우나 결국 완전하게 적응하게 되는 현상을 소개한다.(Carruthers 2005, 94) 공간을 거꾸로 보이게 하는 렌즈에 적응하게 되었을 때 변화된 것은 렌즈를 착용하는 당사자가 바뀌어진 상태를 해석하는 당사자의 지각 시스템의 제어 메커니즘이다. 바뀌어

진 공간을 지각하는 경험 내용이 지각 경험으로 자리잡는 것은 지각 경험에 관한 일차 이론의 설명처럼 지각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고차적 사고이론의 설명처럼 지각 대상에 대한 비추론적인 고차적 사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도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고차적 사고이론과 성향주의적 버전의 설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고차적 사고이론에 따르면 빨간 사과를 보았을 때 내가 느끼는 빨간색 경험은 인과적으로 사과 표면의 빨간색에 의해 야기된다. 그런데 성향주의적 고차 이론에 따르면, ‘지각 대상과의 인과관계는 주어진 상태의 추론 역할로 여겨지므로’ (Carruthers 2000, 261), 적록 색맹자들이 빨간 사과를 베이지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의 색 경험은 사과 표면의 빨간색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다른 지각 당사자의 지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까지 세 절들과 이 절까지에 거쳐 살펴본 것처럼, 성향주의적 버전의 고차적 사고 이론은 인지적 정보처리의 복잡성을 해결하면서 ‘성향적’이라는 점의 잠재적 특성 때문에 가지게 되는 난점은 오히려 여러 종류의 지각 경험의 차이를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비의식적인 지각 경험을 신경과학적인 토대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현상적 의식의 환원적 설명에 관하여는 어떻게 특정한 의식적인 지각 경험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개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의미론에 근거하여 의식의 핵심적 특성인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VII. 맺음말

의식적 경험에 관한 표상 이론들 중 최근에 제시된 성향적 고차 이론은 경쟁 이론인 일차이론과 고차적 사고이론의 난점을 극복하려

는 시도에서 제시되었다. 성향적 고차 이론은 단순히 일차 이론의 난점 뿐만 아니라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이 여러 형태의 무의식적 지각 상태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질적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커루터스가 성향주의적 버전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의미론은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들 중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주관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일 수 있으면서 어떻게 잠재적인 정보로부터 질적인 지각 경험이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적 의식에 관하여 심적인 측면에서 환원적 설명을 제공한다. 성향적 고차 이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각 경험의 최종 출력 내용 자체가 성향적이지 않다는 점이 끝까지 난점으로 남는다고 지적된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 지각 경험이 성향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가정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지각 경험에 있어서 임의로 짧게 상징된 관찰시간에 기인한다고 색깔 지각의 구체적 예를 들어 방어하였다. 이런 점에서 성향적 고차 이론은 지각 경험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가정했던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성향적 고차 이론은 색깔의 물리적 속성이 본래 성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색깔이 지각되는 인과 과정 또한 과학적으로도 일관적임을 밝히면서 다양한 지각 경험들의 차이를 밝혀준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향적 고차 이론은 일차 이론과 고차 이론의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난점들을 보강하는 설명으로, 다른 설명들과 대치되는 경쟁이론으로서보다는 색깔 뿐만 아니라 의식 일반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투 고 일: 2011. 01. 10.
 심사완료일: 2011. 01. 17.
 게재 확정일: 2011. 01. 18.

김효은
 서울대학교

참고문헌

- 윤보석 2001. 「의식의 주관성과 고차이론」. 『철학』 69, 87-109쪽.
- Armstrong, D. 1968. *A Materialist Theory of the Mind*. London: Routledge.
- Baars, B. 1997. *In the Theatre of Consciousness: The workspace of the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Byrne, A. 1997. Some Like It HOT: consciousness and higher-order thoughts' *Philosophical Studies* 86: 103-29.
- Carruthers, P. 1998, Natural theories of consciousness.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6: 203-222.
- _____. 2004a. Suffering without subjectivity. *Philosophical Studies*, 121: 99-125
- _____. 2004b. HOP over FOR, HOT theory, in R. Gennaro(ed.), *Higher Order Theories of Consciousnes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5-135.
- Chalmers, D. 1996. *The Conscious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nett, D. 1998. *Brainchildren: Essays on Designing Minds*. The MIT Press.
- Drestke, F. 1995. *Naturalizing the Mind*. MIT Press.
- Flanagan, O. 1992. *Consciousness Reconsidered*. Cambridge. The MIT Press.
- Gennaro, R. 2004. Higher-order theories of consciousness: overview, *Higher-order theories of consciousnes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pp. 1-16.
- Jehle, D. & Kriegel, U. 2006. An Argument against dispositional HOT theory. *Philosophical Psychology* 19, 4: 463-476.
- Hardin, C. 1988. *Color for Philosophers: unweaving the rainbow*. Hackett Pub. Co.

- Harman, G. 1990. 'The intrinsic quality of experience,' *Philosophical Perspectives*, 4: 31-52.
- Hilbert, D. 1987. *Color and Color Perception: A Study in Anthropocentric Re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 Locke, J. 1690/1987.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Oxford: Clarendon Press.
- Millikan, R. 1984. *Language, Thought, and Other Biological Categories*. MIT Press.
- Miller, G.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63 (2): 343 - 355.
- Milner, D. & Goodale, M. 1995. *The Visual Brain in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thal, D. 1986. Two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 329-359.
- Rosenthal 2004, Varieties of higher-order theory, *Higher-order theory of consciousness: an anthology*, ed. by Rocco J. Gennaro, John Benjamins Publishing. pp. 17-44.
- Tye 2000, *Consciousness, Color and Content*. MIT Press.
- Weiskrantz, L. 1986. *Blindsight*.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Color Experience and Reductive Explanation
—A Defense of Dispositional Higher-order Theory—

Kim, Hyo-Eun

This paper argues for a form of representational theory of color and Peter Carruthers' dispositionalist version of the higher-order thought theory. The dispositionalist account is a higher-order thought theory, yet overcomes the shortcomings of both the first-order theory and the higher-order thought theory. The theory I embrace explains conscious states such as color perception as available to a higher-order of thought. The difficulty with the account lies in its non-categorical and its non-actual characteristics that become its strength in explicating the different forms of non-phenomenally conscious perceptual states. On the downside, the account seems to have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non-dispositional nature of our perceptual experience. Rosenthal criticizes that the theory has difficulty explaining our phenomenal aspects of mental states because disposition alone has no causal role in making the information actual. I argue against this criticism by raising the question of the received assumption that our perceptual experience is intrinsic. The impression that our color experience is intrinsic might be misleading due to the short time slot in observation. Unlike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 of color, our color experience can be dispositional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observation. In

conclusion, Carruthers' dispositional account of higher-order thought theory is a more refined account that it is consistent with scientific facts of color and that it specifies different kinds of nonconscious color perception.

Keywords: Color, Disposition, Higher-Order Theory, Cognitive Complexity, Non-Conscious Perception